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가 있고 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여기서 주재라는 건, 주인 혹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온 천지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 이 먼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을 시장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시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기뻐하지 않고, 곡을 해도 슬퍼하지 않는 세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무관심한 세대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해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도시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은 것을 기록한 다음, 놀랍게도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구요, 세상적인 기준에선 연약하고 별볼일 없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예수님의 초청으로 마태복음 11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수고하지 않고 무거운 짐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수고한다는 말은 헬라말로 [코피아오]라고 하는데 그 뜻이, “땀을 흘려서 탈 진할 정도로 수고하다, 기진맥진하다” 에요. 그리고 소진되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삶의 무게가 나름대로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삶의 무게 때문에 우리는 소진됩니다. 때때로 탈진하고, 삶에 지치는 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자신의 삶의 무게를 아는 사람/때달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오라” 고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세요.

그러면 무엇을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네, 쉼을 주신다고 했어요. 쉼은 헬라말로 [아나파우오] 안식, 휴식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아나]라는 것은 ‘한가운데, 위에, 통해서’라는 뜻이고, [파우오]는 ‘멈추다, 떠나다, 죄에서 해방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말해서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일들로부터 상쾌함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입니다. 노심초사 자식 걱정들 많으시죠? 그 걱정으로부터 쉼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경기가 호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생업으로 걱정 많으시죠? 그 걱정으로부터 휴식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오늘 성경말씀처럼 "내게로 오라"하셨으니까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께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건, 주일에만 교회 나오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수고하고 지쳐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지쳐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힘이 없어요. 아니,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여유가 없어요.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여전히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해서 "칭의"라고 부르는데, 그 때 나의 원죄가 사하여지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사는 동안 짓는 죄와 허물들을 계속해서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받으며 살아갑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을 완전한 방향 전환 (180도)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우리의 허물이 생기는 순간을 조금씩 방향이 주님께로부터 틀어지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어쩌면 작은 허물 때문에 1도, 3도, 5도 아주 조금 주님과 관계가 틀어진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방향이 하루빨리 수정되지 않으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엔 상당한 거리가 돼요.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라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도 그렇지만 욕망의 세상에 빠져 사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욕망의 원리가 판을 치는 세상에 살다 보면 틀어질 수가 있어요. 아니, 조금씩 틀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때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매일 매일 주님께로 다시 향하고 또 다시 향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 3:22-23)

우리가 마음에 짐을 얻기 위해서 첫번째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두번째로 주 앞에 나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주권에 내 삶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어떻게 주님의 짐을 또 지라고 하시나? 예수님도 참 야박하시지?' 여기는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수고한다는 건 탈진하고 기진맥진할 정도로 삶의 힘들음을 경험하는 순간이니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멍에를 메고" 라는 부분을 주목해 봐야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멍에를 나무로 만들었는데, 멍에를 뿔 짐승의 목에 맞추었다고 합니다. 멍에 멘 소가 주인의 뜻대로 일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에게서 인격과 교훈과 삶을 배우면

안식을 얻습니다. 멩에는 헬라말로 [쥐고스]라고 하는데, 그 본래 뜻이 ‘연결하다, 연합하다(to join)’라는 뜻이에요!

내 가정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학업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구요, 내 직장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곳에 주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 키를 주인께 연결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멩에라는 거예요!  
또 내 삶을 주님께 맡겨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겠다는 의지가 바로 멩에를 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도 혹은 모태신앙이어도 멩에를 매는 건 목회자만 하는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멩에를 매라는 말씀은 심을 얻고자하는 모든 이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멩에를 매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죄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의지를 가지고 자기 죄에서 예수님께로 돌이킬 때 일어나거든요! 주님의 멩에를 멘다는 건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 멩에를 매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멩에를 매었는데 그럼 걱정이 되요... 어떤 걱정이냐면 혹시라도 우리 주님께서 폭군이 나 악덕업주처럼 나를 부리실까봐 걱정을 해요... 세상에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질이라는 말이 있듯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걱정없이 예수님의 멩에를 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꺾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 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배우면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걱정을 먼저 붙들어 매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억압할 목적으로 멩에를 매라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워주시지도 않습니다. 내 삶의 무게가 마냥 무겁고 불편하다고만 느낀다면 그건 내가 아직도 주님의 멍에를 지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옛날에 어떤 노인이 지나가는 대학생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노인을 피해 지나가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아직도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믿으십니까?” 학생의 물음에 노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학생이 원한다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물로도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당장에라도 보여줄 수 있네.” “뭐라구요? 그럼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자 노인은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학교 건너편에 있는 마을에 가서 혹시 집시 스미스(Gypsy Smith)라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고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그러면 아마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며 악명 높은 알콜중독자였다는 것을 자네에게 말하여 줄 것일세.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술을 마시지 않고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네. 그런데 그가 지금은 술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물만 마시면서 감사함으로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고 있다네. 바로 그 사람이 자네 앞에 있는 나일세.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지. 그분은 지금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물로 변화시키신다네!” 영국의 부흥사 집시 스미스(Gypsy Smith)가 남긴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변화라는 기적을 만드십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는 11월의 둘째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사모하고 읽고 배우고 순종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일수록 성도들의 영적 생활에는 장애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변화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멍에... 몰랐을 땐 막연한 부담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